전자수입인지 연계 도입현황 및 기대효과

① (배경) 정부는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전자문서 이용 확대에 맞춰 '전자적 형태의 수입인지제도' 도입

- 전자수입인지 개념 :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전자적으로 결합되는 데이터 형태의 수입인지(고유번호, 발급일시, 금액 정보 포함)
- 시행경과
 - 인지세법('13.12), 수입인지법('14.12) 개정 → 전자수입인지 제도시행('17.7)
 - . 계약서나 부동산 증서 등의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문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인지세법 제8조)
- 기재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기관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지정('17.7)하고, 제도 개선 등 활성화 추진 중 (붙임 1)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 전자수입인지 정착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 발송(기재부 국고과, '18년 2회, '20년 1회)
 -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전자수입인지로 일원화(국세청 '19.3)

② (현황) 34개 공공기관 및 123개 민간기업의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연계로 수작업 최소화, 정보보안 강화 등 디지털 혁신 촉진

- 종이수입인지의 과도한 소인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적 자동소인(수입인지법 시행령 제17조), 수입인지 구매내역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도입 사례 (붙임 2)>

- ◇ 조달청, 방위사업청, LH, 한전,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34개 공공기관
- ◇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롯데건설, GS칼텍스, POSCO 등 123개 민간기업

③ (효과) 고객사 전자계약시스템과 KTNET 전자수입인지 시스템간 연계 구축시 1개월내 짧은 구축기간으로 도입 기관의 업무혁신 가능

- 고객사 내부시스템에서 One-Stop 업무처리 → 정보보안 및 계약서 외부유출 방지
- RPA 솔루션을 이용, 인지세 납부자동화 등 수작업 해소 → 업무혁신
- 인지세 납부정보 디지털화 → 납부이력, 미납·오납, 통계관리 자동화

[붙임] 1. 제도 개요

□ '17.7.1일 정부는 전자문서가 확대 사용되는 추세에 맞추어 전자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수입인지를 도입('17.7.1 시행)

- (지류(紙類) 전자수입인지 한계 보완) 종이형태의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사, 스캔문서 위·변조 등의 문제를 전자적 형태의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여 보완
※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금융결제원), 전자문서용(KTNET)으로 구분
- (홈텍스 등 이원화체계 → 전자수입인지로 일원화) 기획재정부(국고국)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조기 정착을 위해 국세청과 협력하여 납부방법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일원화하도록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19.3.1 시행)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19.1.1 시행)
 -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을 확대(2점→4점)하고, 인정 기준 강화(전자수입인지 사용 확인절차 강화)

[붙임] 2. 이용현황

<공공 34개>

조달청 나라장터, 방위사업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2B(학교장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GKL, 한국환경공단, 한국발명진흥회,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안전공단, 지식재산보호원, 한국관광공사, SRT, 코레일유통, 제한차량운행허가, 국립생물자원관, 산지전용허가, 수상레저사업허가, 화학물질안전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물보건사용시

<민간 123개>

POSCO, 포스코건설,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엔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GS건설, GS칼텍스, GS E&R, GS칼텍스, GS파워, 현대산업개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SK, SKINS, SKD&D,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한화솔루션, 대우조선해양, 디엘건설, 두산건설, 두산전자, 두산모트롤, 두산디지털 이노베이션, 두산유통, 태영건설, 계룡건설, 부영주택, 한라건설, KCC건설,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한진중공업, CJ대한통운, 금성백조, 서한, 신동아건설, 오티스, 동부건설, KT엔지니어링, 대명건설, 녹십자E&M, 휴비스, 도레이케미칼, 카방, 푸르시오, DB Inc, 모아주택산업, KG모빌리티, KGEIS, eepss, 이비즈포유, 나이스다큐, 한국정보인증, 웹사인, 한국경영원, 건설공제조합, 컨스트링크, 범양건영, 한국폐기물거래소, 카피즈, 하이테크엔지니어링, 씨마켓, 전북대병원, 금강주택, 삼부토건, 명일건설, 우미개발, 상아건설, 인천종합에너지, 호남환경에너지, 충청환경에너지, 경기환경에너지, 경북환경에너지, 경인환경에너지, 두산퓨어셀파워